

폭염 대비에서 안전·수송까지... '성공대회' 만반의 준비



세계수영대회 막바지 점검 분주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일이 3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 등이 막바지 점검을 위해 분주하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행사이며,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광주를 찾는 국제수영연맹 임원과 세계 각국 선수단, 관광객 등의 수송부터 숙박·안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들이 광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상품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안전'에 최우선=광주시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 기간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잡고 있다.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대테러대책본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의 대테러 안전 활동과 출입통제,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과 소방관, 군 병력, 민간요원 등 일일 최대 40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8개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324개소에 CCTV 626대를 설치해 24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체제도 마련했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27개 지역 종합병원을 비롯한 5개의 료단체 등과 긴급 의료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대회기간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본부호텔 등 20개 대회시설에 의료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급급차와 각종 의로기기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장의 무무실은 경기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선수촌에 설치된 메디컬 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특히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광주시가 긴장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도 여름철 감염병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보 모니터링 604개소를 설치해 감시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대테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차량 398대 동원 완벽한 수송서비스 선수촌 온열질환 감시체계 상시 운영 각종 문화행사·관광상품 등도 마련

◇수송·숙박 만반의 준비 갖춰=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선수·임원, 심판, 미디어를 대상으로 승용차 199대, 승합차 79대, 버스 120대 등 수송차량 398대를 통해 효율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선수단 도착에 대비해 인천과 김포, 무안공항에 수송버스 32대를 편성·운영하고,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인천~광주승강간 KTX도 1일 7편(하행 4·상행 3)을 7월9일부터 7월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시설도 마무리됐다. 선수촌에는 숙박시설 이외에도 각종 은행과 편의점, 면세점, 피트니스 센터 등 15개의 편의시설이 갖춰졌고, 선수촌과 미디어촌에는 각 동별로 서비스센터도 운영된다. FINA 주요 인사와 기술임원, 국제심판 등은 광주와 나주에 본부호텔 7개소를 마련해 636개의 객실을 확보했다. 경기진행요원과 외지 자원봉사자 등은 관광호텔 4개소와 대학기숙사 3개소 등 지정숙박 7개소를 만들어 415개의 객실을 마련했다.

◇'폭염' 대비도 철저=조직위는 지난해 여름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이어지는 폭염이 38일 동안 지속됨에 따라 재난 수준인 '폭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폭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회시설 주변과 주요 음식점 800개소의 안전관리와 함께 대회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관람객 등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 전역에 무더위 쉼터 1500개소를 운영하고, 그늘막 150개 설치, 살수차 50개 노선 가동, 재난 도우미 2500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실외 경기장의 경우 관람석 차양막과 경기장 주변 쿨링 포그(물안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온



10일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30 기념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성 조직위원장(광주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부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김동준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열질한 감시체계 상시운영, 폭염 질환자 119구급대 신속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광주의 맛·멋 알린다=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관광상품이 대회 기간 중 광주를 찾는 각 국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을 반긴다.

대회기간 중인 7월19일~21일까지 세계청년축제가 열리고, 318개 학교의 약 12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수영대회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거리공연, 마임, 마술쇼 등이 열리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여름 시즌행사도 확대·연장된다. '대인예술아시아'

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의 거리 문화체험 행사'도 아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광상품도 마련됐다. 우선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을 매주 주말에 확대 운영한다. '광주100년 시간 투어'는 양림동과 오월광장을 경유하는 '100년 버스'와 5·18 기록관,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을 경유하는 '5월 버스' 등 2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또한, 무등산권, 전통 유적지, 예술공연권 등으로 나눠 순환형 시티버스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외국인들이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김치타운, 전통문화관을 경유하는 특별버스 1개 노선도 운영된다. 10개 여

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주권 상품과 광주·전남·전북권 상품, 전국권 상품 등 30개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전남도에서도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들과 가족을 위한 특별상품을 개발해 대회 기간 동안 운행한다. 대회 연계 특별상품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당일코스 7개와 1박 2일 코스 2개로 구성됐다.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일원에는 마켓스트리트가 운영되고, 정부와 각 지자체 홍보관, 푸드존, 상설공연장 등이 설치돼 관람객과 대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권일 기자 cki@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야에서'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옛 대공분실서 6·10항쟁기념식 “깨어 있어야 민주주의 후퇴막아”

서지현·박창진 사회로 32주년 행사 여야 지도부 참석... 한국당 대표 불참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오전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렸다.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을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과거 숭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자 앞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공간이 될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와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로 사주 일가

의 '갑질' 행태를 드러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기념식 사회를 맡았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고문피해자와 독립유공자 후손, 4·19 및 5·18 유공자 후손 등이 무대에 올라 함께 애국가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가 더 굳건해지도록 일상 속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음을 쫓

불혁명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의나무 합창단과 가수 장필순은 '제비꽃', '상록수' 등을 불렀고, 참석자 전원이 '광야에서'를 제창하면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민주화운동 인사와 후손, 고문 피해자,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과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참했고, 조경태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하나팩

우리 가족여행의 첫 단추! 무안공항에서 더 가깝게 떠나자!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일본		동남아/대만		
<p>몽골</p> <p>1,199,000원~</p> <p>올리바타르/테렐지 5일, 6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5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3월5일 7/27, 8/5, 8/13, 8/17, 4/6일 3/31</p>	<p>블라디보스톡</p> <p>559,000원~</p> <p>블라디보스톡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3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월, 수, 목요일 2/4일 금요일 3/5일</p>	<p>홍콩/마카오</p> <p>649,000원~</p> <p>홍콩/마카오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3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월, 수, 목요일 2/4일 목요일 3/5일</p>	<p>마카오</p> <p>577,000원~</p> <p>마카오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3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화, 목요일 2/4일 목요일 3/5일</p>	<p>후쿠오카</p> <p>599,000원~</p> <p>후쿠오카 3일,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5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 목 2/4일 3/5일 3/4일</p> <p>※일본여행사협회인증</p>	<p>오미타</p> <p>559,000원~</p> <p>오미타/유후인벳 3일,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30,00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월, 수 2/4일 3/4일</p>	<p>보라카이</p> <p>502,000원~</p> <p>보라카이 4일, 5일 라카엘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5일 목요일 4/5일</p>	<p>세부</p> <p>497,000원~</p> <p>세부 5일, 6일 솔레이리조트</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화요일 3/5일 금요일 4/5일</p>	<p>다낭</p> <p>549,000원~</p> <p>다낭/로이안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목요일 3/5일 금요일 4/5일</p>
<p>상해</p> <p>329,000원~</p> <p>상해/양주/구자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4일 토요일 4/5일</p>	<p>상해/왕산</p> <p>549,000원~</p> <p>상해/왕산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4일 토요일 4/5일</p>	<p>상해/장가계</p> <p>1,099,000원~</p> <p>상해/장가계/완가계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4일 토요일 4/5일</p>	<p>상해/계림</p> <p>1,069,000원~</p> <p>상해/계림 4일, 5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요일 3/4일 토요일 4/5일</p>	<p>오사카</p> <p>599,000원~</p> <p>오사카/코트나라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월, 화, 목, 일요일 3/4일</p>	<p>도쿄</p> <p>789,000원~</p> <p>도쿄/오코야마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00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목요일 3/4일</p>	<p>방콕</p> <p>399,000원~</p> <p>방콕/파타야 5일, 6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수, 목요일 3/4일 토요일 4/5일</p>	<p>대만</p> <p>530,000원~</p> <p>대만/기우핀/야류 4일</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4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매일 3/4일</p>	<p>코타키나발루</p> <p>699,000원~</p> <p>코타 5일, 6일 시내 온통극</p> <p>한자별 가이드·가사경 530·선택경비 있음</p> <p>운행일 목요일 3/5일, 일요일 4/5일</p> <p>※이탈리아도 2/4일 3/5일</p>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틸리티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료,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틸리티료) 유틸리티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특별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연락을 받습니다. ■관광사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호) 2일 이상 2인 1실/교통신원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에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틸리티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사 상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계를 국가 지정 현행) ■여행 유의 ●여행 자체 ●철수 권고 ●여행 금지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H 여행, 하나투어!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